

평창군 시설관리공단, 강릉시 옥계면에 산불 피해 성금 기부

✎ 서용은 기자 | ⓒ 승인 2022.04.21 17:56



<사진제공=평창군>

(평창=국제뉴스) 서용은 기자 =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20일 최근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성금 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기부금은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 전달돼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 및 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.

공단은 이번 성금 기부 외에도 명절 전 전통시장에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시설 인근 주민들을 도와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다.

박현창 이사장은 "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릉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"며, "하루 빨리 아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"고 전했다.

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/sye1217@hanmail.net



서용은 기자 sye1217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